



“마지막 결정 내가 내린다” “한국 쇠고기 반드시 개방”

한·미 FTA 최종 협상 양국 정상까지 나서 총공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 등 양국 정상까지 나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광범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 3개국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미FTA 협상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상황을 직접 챙기며 ‘마지막 결정은 내가 내리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 두 개 쪼리를 따야 될지도 모르겠다”며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실명을 충분히 들은 최종

책임자인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두 개 쪼리를 따야 될지도 모른다’는 언급에 대해 “한미 FTA 협상은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쌀, 쇠고기 관련 사안으로 이것들이 주고받는 패키지라서 한 두 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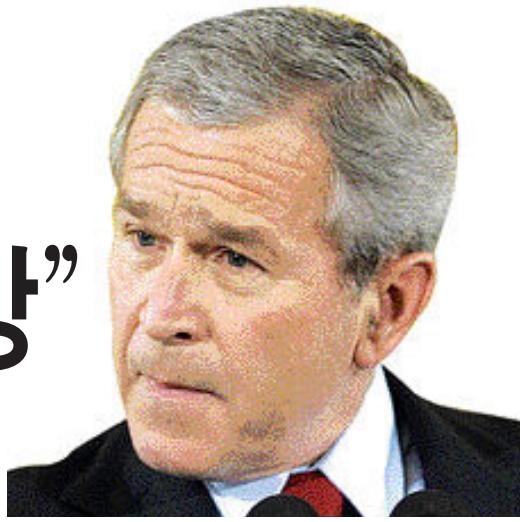
특히 노 대통령은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간 장관급 협상을 통한 막판 타결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 자신이 한미 FTA 타결 여부에 대한 최종 단안을 직접 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쌀, 쇠고기 시장 개방 등 쟁점 사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실익을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순방에 앞서 쌀과 쇠고기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예정시점인 30일 이후 실제 협상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담화 발표 이전에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반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FTA 타결의 최대 난제로 부각한 ‘빼있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한국을 거론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



경제부처 FTA ‘올인’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최대의 자율 개방이 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31일 오전 7시)을 이틀 앞둔 29일 경제부처들은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협상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타결에 대비해 한미 FTA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 세부 업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한미 FTA 후속 보완 대책 마무리 작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중동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 귀국 뒤인 31일 오후 한미 FTA 협상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달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될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한미 FTA 협상 진행 상황에 귀를 기울이면서 협상 타결에 대비, 대국민 홍보대책 및 피해산업 보완대책 마련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재경·산자·농림부·공정거래위

타결 대비 손익 계산·대책 마련

협상 상황 촉각속 긴박한 움직임

권오규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별도로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TV에 출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재경부 제1차관과 2차관은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영록 정책홍보관리실장도 여야 의원 및 보좌관들을 만나 한미FTA 협상 및 추후 일정에 대해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중 섬유, 자동차, 무역규제 등 주요 분야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산자부도 협상장의 움직임에 안테나를 집중하면서 타결에 대한 준비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처 내부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물 경제와 산업 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로서 FTA 협상 타결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FTA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로 연결될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한미 FTA 협상 기간 주요 업종별 관계자들을 초청, 협상 진행상황과 정부의 협상 방침을 설명해왔으며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달 5일부터 업종별 간담회와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한미 FTA가 개별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업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쇠고기’라는 초민감 품목의 실무를 맡고 있는 농림부는 협상 타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밝혀왔던 원칙은 지킨다는 입장 아래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를 비롯한 여타 분야에서 미국과의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구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소비자들의 후생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여타 분야의 최종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 나흘째인 29일 협상장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왼쪽)과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 등 미국 대표단(오른쪽)이 각각 협상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 나흘째인 29일 협상장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왼쪽)과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 등 미국 대표단(오른쪽)이 각각 협상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의원 40명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각당 의원 40명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 비상시국회의’를 열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한나라당 권오규, 우리당 강창일,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민중심당 유근찬, 민생정치준비모임 천정배 의원 등의 의원 40명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안 성명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흠뻑 젖어 있는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0일 오전 9시 예정대로 비상시국회의를 열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협상 깨져도 쌀 만은 지킨다”

정부 배수진 치고 막판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국무총리 지명자, 농림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총동원돼 쌀 지키기에 나서는 등 막판 협상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쌀’ 문제에 대해서는 ‘노(No)’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쌀이(개방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폐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쌀이 포함되면 협상은 폐지된다’는 한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협상 대표단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한 지명자의 발언을 대통령의 뜻으로 봐도 된다”고 전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의 조원동 차관보도 정세 브리핑에서 “쌀은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며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는 요구를 한다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쌀은 물론 쇠고기, 오리, 돼지고기 등에 대한 미국의 즉시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뒤 “쇠고기 관세의 완전 철폐는 어렵고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낮춰야 하며 오리, 돼지고기 역시 15~20년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빼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5월 이후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등급이 확정된 뒤에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FTA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9급공무원시험 [일반행정] 합격책임제 모집

정원 30명! [제1남성반:10명] [제2여성반:10명] [남여동합반 10명] 개강 4월 9일 입학 7월 1일

9급 합격보장반 [성균관고시원] 06-07년간학습계획표	수강생 의무사항	수업생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1. 9급 합격보장반2. 9급 합격보장반3. 9급 합격보장반4. 9급 합격보장반5. 9급 합격보장반6. 9급 합격보장반7. 9급 합격보장반8. 9급 합격보장반9. 9급 합격보장반10. 9급 합격보장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1. 9급 합격보장반2. 9급 합격보장반3. 9급 합격보장반4. 9급 합격보장반5. 9급 합격보장반6. 9급 합격보장반7. 9급 합격보장반8. 9급 합격보장반9. 9급 합격보장반10. 9급 합격보장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1. 9급 합격보장반2. 9급 합격보장반3. 9급 합격보장반4. 9급 합격보장반5. 9급 합격보장반6. 9급 합격보장반7. 9급 합격보장반8. 9급 합격보장반9. 9급 합격보장반10. 9급 합격보장반

장남이고 후문 건너편 **메가 고시학원** 전화 226-5050